



# 무조건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믿고 놓기만 하라!

석가모니도 늙고 죽음이 있었는데...

**질문** 부처님 가르치심의 핵심이 되는 인연법을 말할 때 오래 십이연기(十二緣起)가 거론되곤 합니다. 무명(無明)이 있으니 행(行)이 있고, 행이 있으니 식(識)이 있고... 그와 같이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나가다가,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거꾸로 말한다면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그렇게 해서 생로병사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줄여 보면 무명이 있기에 생로병사가 있고 무명이 없으면 생로병사가 없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서는 분명코 무명을 여의신 분이었는데 어째서 늙고 죽음이 있었는지요?

**답변** 부처님께서 그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두 못 알아 들어서 대답을 못 들은 거죠.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본래 빛깔과 음파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텔레비전이 나오듯 나오는 것이지, 이 텔레비전 자체가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보실 줄 아는 사람은 생로병사가 무(無)라고 할 거고, 보실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몸뚱이가 죽으니까 죽었다고 하고 몸뚱이가 살아야 살았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가끔 하죠. 두 친구가 하나는 스님이 되고 하나는 속인인데, 속인인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스님 된 친구를 불렀습니다. 천도를 잘 좀 해 달라고 딱 불렀는데 천도는 안 해 주고, 한다는 말이 "어휴! 온 것이 없다면 갈 곳도 없을 것을..." 아, 이렇게 한마디 하고 속가 버려버려요. 온 것이 없다면 갈 곳도 없을 것을... 그런데 그게 지어 가지고 그냥 죽었으니 살았으니 애를 쓰고 야단들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옷이 헐고 헤지고 바래고 그랬으면, 또 그 시대에 맞지 않고 그러면 벗어 놓고 새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건데 죽었다 살았다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도리만 알면은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여함이지요.

둘 아닌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림 · 최주현

**질문** 스님께서서는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둘 아닌 도리를 실천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둘 아닌 실천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답변** 둘 아닌 실천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모두 내 몸뚱이 네 몸뚱이를 가지고 이렇게 실천이 되게끔, 둘 아니게 실천이 되게끔 된다면 일일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뿌리가 뭐, 떨어졌다가 붙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뿌리는 자기 뿌리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 뿌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나에게 줘도 상대방인 그 사람도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고 나도 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뿌리와 뿌리가 한데 합쳐 버려요. 합치게 돼 있어요. 이 텔레비전을 끄면 안 나오죠. 켜면 나오죠. 그렇게 자유자재해라 이 소립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둘 아니게끔 된다는 소리죠.

처음에는 서툴지만 그게 둘 아님이 되기 때문에 서툴러도 하다 보면 물리가 터지게 되고 자꾸자꾸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 생각 자체 하는 것도 요이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유유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이 들고 말합니다. 왜 약한 것도,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약한 거나 선한 거나 둘로 보지 마라.'

이랬죠. 거는 이 모두를 합류화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이 몸뚱이도 나 하나로만 보지 마라. 수천 개가 이 몸속에 살아 있다.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자 내 생명들이다. 그러니깐 너 하나만, 모습을 보고선 너라고 그러지 마라." 이랬죠.

그랬는데 이게 말로는 할 수가 없는 말이지요. 둘 아닌 도리를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는 그 얘기는 내가 할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마음 놓고 생각 없이 그냥 "아, 이것 좀 먹어 보우." 이라고 했는데, 그냥 줬는데도 그냥 둘 아닌 줄 알아라 이거죠. 그걸 생각을 일일이 해서가 아니라. 둘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줬

어도 그렇고, 받았어도 둘 아닌 줄 알게 되면 이 받은 것이, 저절로 이 대가가 일로 가요. 가는 줄 모르게 가고 오는 줄 모르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모른다면 이 큰 도리를 모른다. 그래서 공부하게 되면... 이 전 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지진이 어떻게 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냥 떨어져서 죽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모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개미들도 보고 여러 가지 벌레들도 많이 보죠. 벌레 등우리가 하나가 터지게 되면, 삼으로 인해 딱 터지게 되면은 그게 그냥 쪽 해지면서 땅에 묻히기도 하고, 그냥 모두 다리도 끊어지고 목도 끊어지고, 다 죽게 되고 사는 놈은 살고 이렇게 되죠. 이런 거 보는 거나 우리가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죽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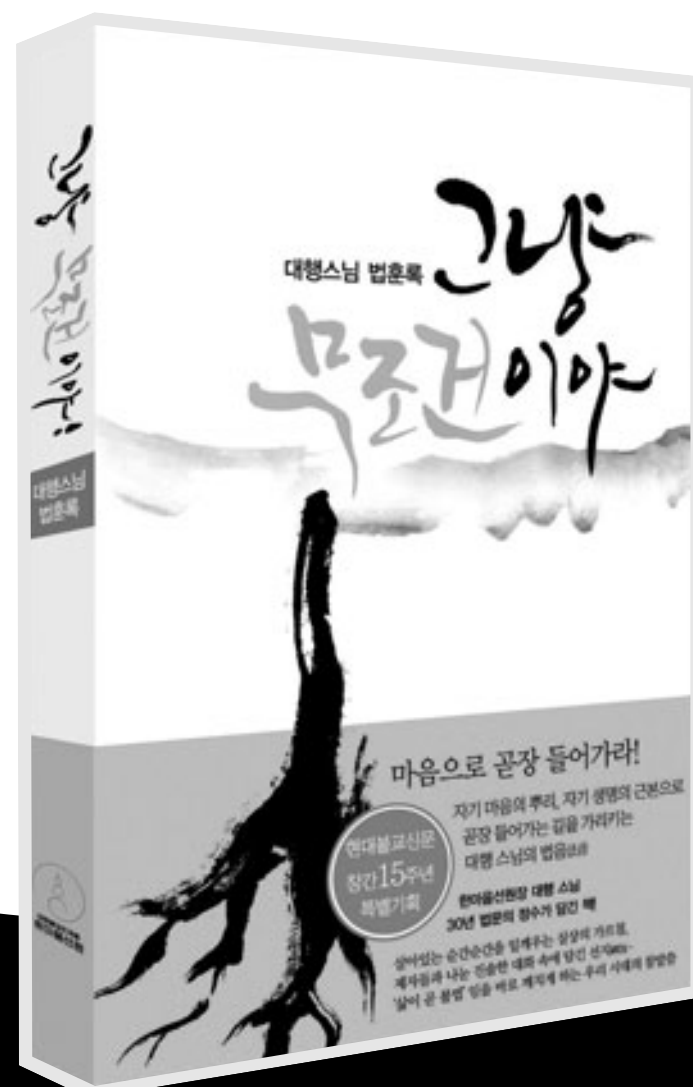
그래서 차원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오계를 받을 때 얘기했죠. 남의 생명도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라. 또는 내 물건과 같이 생각하라. 내 아픔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모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벌레들 그렇게 죽는 문제들. 허청없이 그냥 밟아 가다가도 그 저 이런 벌레들이 모두 꾸역꾸역 나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탁 쳐서 그냥 벌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산이 헤어지고 죽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자기 문제로 돼 버려요.

그게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한 거는 네가 그것을 해결해야죠. 자기가 해결해야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면 자기가 고통을 받을 때 그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를 생각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가 진화되고, 살아 있으면서도 진화되고, 살아 있으면서도 생산이 되고, 살아 있으면서도 길을 찾고, 살아 있으면서도 길을 걸릴 없이 걷게 될 때 비로소 자유인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가 지금 모두를 잘해야 되죠. 스님네들은 염불도 잘해야 되고 뭐, 모든 거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마음들이 이 거를 잘했다 하면은 한 가지는 이렇게 빼놓고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쪽 / 값 11,000원

#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여함이죠!

## 29면에서 계속

이거 해요. 빼놓고 하는 게 아니죠. 닥치는 대로 잘해야 되겠죠. 어떤 거든지. 어떤 거를 막론하고 다 잘할 때에, 때에 따라서 길을 걷다가도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항상 그냥 무심코 하던 거 때문에 그냥 하게 되죠. 그냥 생각하게 되고요. 그냥 자기 하나의 생각뿐이 아니라 포괄적인 생각으로서 그냥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못 중생을 건질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이런 공부를 해서 포괄적인 생각으로서 돌 아나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다 건진다. 죽여도 건지는 거고 살려도 건지는 거다. 이게 사람이 한 철 살다가 그냥 끝나면 그게 아닌데요, 한 철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내 이게 끝이 없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죽어도 그냥 건진다.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생각을 잘할 때에 어떤 때는 종자가 될 생계가 하는 이유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집은 조그만 데다가 식구는 너무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집이 터질 거 같으니까 종자를 다섯, 하나 하나 치면 열 개 스무 개를 놓아야 될 텐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놓는다. 이런 것도 되고요. 이런 것도 실천입니다. 이게, 모두가 실천이예요.

옛날에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인제 공부하는 분들이, 선방에 계신 분들이 인제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가다가 말곤 뚱그렇게 그냥 금을 그어 놓고선 “너희들, 여기 못 들어오면 정각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들 글로 들어갈 수밖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 소리 없이 발로 그 그런 걸 다 지워 버리고하는 소리가 “여기 들어가면 때여서 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또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쪽에도 글로 들어와야 정각을 한다 하고, 이쪽에는 그것에 매이면 정각을 못한다 하고 했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틀리든지 옳든지 그냥 해 보세요. 허허허. 틀려도 별로 틀리지 않을 텐데. 이거를 그 당시에 그렇게 놓고선 아무리 일러 달래도 일러 주질 않았어요. 본인들이 그건 알아야 하느니라 하고.

그래서 돌 아닌 도리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면은, 이것이 알토당토않은 말이라도 여기 와서 달지 않는 말이 있고 여기 와서 달는 말이 있죠. 만날 그냥 한 도리에서 자꾸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부처님 법이냐?” 하고 물으니 아주 뒤신나게 그냥 “이 세상은 모든 게 하나로 돌아

나.” 하니깐 “그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 있느냐?” 이라고 물으니 대답을 거기서 못했더라 말입니다. 그와 같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모를 때는 아주 그게...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게 돼야 눈도 뜨고 귀도 뜯는다. 이런 거죠. 우리가 ‘돌’ 해도 하나고 ‘하’ 해도 둘입니다. 하나 하면 돌이 있는 거고 돌이 있는 거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비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걸 알면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상도 없고 모두가 없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요.

**극한 상황에 몰려야 불문에 드는지**  
**질문** 스님이 되는 것은 큰 복을 받으신 것이라 우리 불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 몰려야 승려가 되거나 불문에 드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도 두 가지 여건이 있죠. 하나는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자기가 과거에 배우던



식이 있어서 다시 그 길을 밟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마음이, 내 뿌리의 자리에서 엄숙하게 자꾸 이렇게 몸뚱이를 리드하니까, 생각이 ‘아, 나는 이 도리를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서, 근기가 아주 튼튼하고 뿌리가 튼튼하고 좋아서,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그런 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리가 좋아서 자꾸 공부하게 되고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문에 들게 되고 서로가 이 마음법을 공부하는 거죠.

지금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모두 딴 이름이나 찾은 형상을 찾으려서 기복으로 다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하는 것은 세세생생에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면으로는 자기 악업 선업에서 벗어나고, 또 천체로서는 바로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산소를 잘못 건드리면...**  
**질문** 대부분의 자손들이 부모를 산소에 모

실 때 좀 더 좋은 자리에 모시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를 잘못 건드리면 그 자손에게 어떤 해가 미치는 경우가 있다던데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답변** 묘지는 그 산의 산수라고도 하고 묘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동글게 묘지를 뚫죠? 그래서 거기다가 부모를 모시고 본 사람은 누구며 보여 준 것은 뭐냐 이겁니다. 돌아가시기 이전 이 후를 다 합쳐서 본 사람은 지금 산 사람이고, 보여 준 거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동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가서 동그렇게 돼 있는 것은 전후가 한데 합쳐진 바로 원 도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천상천하가 다 한데 합쳐서 모쳐진 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 컵을 들으시고) 산소라면 여기도 우주개공이 담겨 있다. 이런 거죠. 이거나 이거나, 돌이 아닌 깨달음 바로 본 놈도 돌이 아니죠. 그래서 묘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돌로 보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 하는 것은 세세생생에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면으로는 자기 악업 선업에서 벗어나고, 또 천체로서는 바로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것이니까 본 사람은 거기 누워 있는 사람, 묘지가 한데 합쳐진 것도 사람이 이렇게 모아 났고요. 마음이 한데, 이전 이후가 다 한데 모아진 셈이나 똑같은 거죠. 그걸을 아시려면 원심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잘 탐구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 놓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소송이다, 대승이다 하는 교리를 다 놓고 돌아가는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 무슨 그것이 잘못되고 잘되고 있습니까? 일체 만법에, 뭐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영(靈), 의식은 수만 개가 들어와도 들어온 사이가 없고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고, 또 내가 가다가 ‘아, 여기가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 그냥 묻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지리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또는 의학이라든가 천체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돌아가는 공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해 봐서 알겠지마는 아, 그런 데서 부적을 붙이고 온통 야단을 하면서 그렇게 걸리다가는 못 하나 바라도 탈이나. 그런 데 나중에는 그거고 뭐고 다 버리니까 탈도 안 나고 외려 더 잘되더라는 얘깁니다. 지금 사람이 먹고 살고 이렇게 살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런 걱정 저런 걱정 하다가 세월 보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놓으세요. 아무 걱정도 마시고, 걸리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지구의 장래가 궁금합니다**  
**질문** 저의 질문은 지구의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모든 현실을 지켜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환자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구 폭발 문제라든지 물 부족, 식량 부족, 이상 기후, 양극점의 얼음 녹는 문제, 지진 발생, 오존층 파괴, 자원 고갈, 산소 부족 등등 많은 중증을 앓고 있습니다. 스님, 앞으로 지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 m.btn.co.kr

2015년 11월 2일 부터!!

##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 가을 대개편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이 변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공익을 실천하겠습니다.

법륜스님이 안내하는  
**붓다의 길 깨달음의 길**

월 오전 11:20 수 밤 11:00/ 목 오후 3:50/ 일 오후 6:50

**세상만사**  
우리들의 토

수 오전 11:20 목 밤 11:00/ 토 오전 8:30

프린터  
프린터

화 오전 11:20 토 오후 1:50/ 일 밤 9:50

어떻게든  
스승

화 오후 7:30 수, 토 오후 1:20/ 금 오전 6:20/ 일 오전 8:50

이것이 감사한다

화 오후 2:50 목 밤 8:00/ 일 오전 11:20

BTN  
전문특설

수 오후 1:50 금 밤 12:00/ 일 오전 4:00

BTN 은 모든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키아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71번 alleh HD 233번 Btv HD 555번 U 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 02.3270.3300